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 흘러야 하는데... 물꼬 트다 만 '세제 개편안'

주주 충실 의무·상속증여세 인하·배당 분리과세는 '패키지' 상속세 개편은 뒤로 미루고 배당 분리과세는 원안서 후퇴
대주주가 배당할 유인 없어...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유리
'공시지가 현실화' 가능성... 돈 묶인 자산가 증시 외면할수도



“국내 증시가 성장하려면 부동산에 묶인 돈이 증시로 흘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더 해도 대주주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액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주주 충실 의무, 상속증여세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따로 떼놓을 수 없는 ‘패키지’와 같은데, ‘부자감세’ 논란 속에 흐지부지 돼 버려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한 증권 자산운용사 대표

8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3200선에 머물고 있다. 지난 1일 코스피가 하루에만 3.88% 폭락하는 ‘증세 쇼크’를 겪은 뒤, 이어지는 실적 시즌을 소화하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지난 4-5월의 상승세를 견인했던 기관 수급과 6-7월 증시를 밀어올린 외국인 수급이 모두 주춤 가운데, 코스피 5000으로 대표되던 낙관론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증시 낙관론이 힘을 잃은 배경엔 세제 개편안이 자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증세’에 초점을 맞춘데다 세수 기반으로 기업과 증시를 점찍으며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이 ‘모멘텀’이 되어 증시를 밀어올렸다면 세제 개편안이 그 실체가 되어 ‘펀더멘탈’을 채워줘야 하는데, 앞뒤 관계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초의 실망감은 이미 7월 중순 불거져 나왔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이 빠졌다는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다.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은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주가를 실질 가치보다 낮게 유지하려는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중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일본은 38%, 미국은 4%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선 그간 유산세(전체 상속 재산 기준 과세)를 유산취득세(상속자 취득 재산 기준 과세)로 바꿔 중과세 비중을 낮추고,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 기준을 높여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해준다면 대주주가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해왔다. 현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며, 실제 개편 가능성은 미궁에 빠져버린 상황이다.

법인세율 상승 역시 기업 수익성 악화 재료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5년간 법인세가 18조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중 대기업이 16조8000억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순이익이 180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5년간 16조원의 세 부담 증가는 대략 대기업의 마진율을 2%포인트 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정타’는 이번에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였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되긴 했지만, 증시에서 원하는 수준은커녕 의원 발의안(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도 크게 후퇴한 내용이 담겼다.

원안에서는 최고세율이 27.5%(지방세 포함)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했지만, 정부안은 최고 38.5%로 상향조정됐다. 현행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종합소득세의 공제를 감안하면 격차 7~8%포인트에 그치게 된다.

이 경우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리고 38.5%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 현금을 내부에 쌓아놨다가 지분 매각 시 현금가치를 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양도소득세로 27.5%를 내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배당을 늘릴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자본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주주들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며 “현실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환원은 대주주의 결정에 달려 있고, 이번 개편이 대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배분할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면 실효성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동산’과 ‘주식’ 사이의 수익성 대결에서 주식이 처음으로 앞서갈 수 있을 희심의 카드로 꼽혀왔다. 배당소득은 공제 없이 최저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이자 및 재산세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기본공제 등이 적용되는 까닭이다.

분리과세 세율 상향 조정으로 인해 이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해야 하는

데, 최고 38.5%의 배당소득세율은 부동산에 묶인 돈을 주식으로 돌리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배당성향 40% 이상’ 등 분리과세 대상 기업 요건이 높아지며, 국민주로 꼽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물론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등 주요 배당주조차 현 시점에서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아닌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동산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 역시 자산가들의 자금이 증시로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현재 69% 수준(아파트 기준)인 공시지가를 실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면 주택 재산세 부담이 현행 대비 61%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2021년 공시지가 현실화 당시에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퇴직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현금 흐름 창출력이 부족한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연말 주가 변동성’을 낮출 뿐,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주주 요건은 증시 부양 정책 후퇴를 알리는 상징적 존재였을 뿐이란 것이다.

한 증권사 트레이더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연말 코스닥 중소형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권자인 개인투자자들이 민감해할만한 주제”라며 “정부 및 여당이 상속증여세와 배당 분리과세에서 이전의 구호 대비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의 향후 방향성을 예상하는 데엔 훨씬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강지수 기자

증세기조 속 해외이민 고민하는 자산가들… 해외주식도 과세당국 사정권으로

국외전출세, 해외주식까지 확대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자산가들 “이민 시점 앞당길 수도”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 고민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했던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정부의 증세 기조는 명확해지고 있다. 여기에 국외 이주 시 해외주식에 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선 이민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 내 갈등이 격화됐다.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과세대상을 넓히는 증세 조치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취합해 대통령실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상속세 완화를 기대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과 더불어 상속세 인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빠지면서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현실화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현 정부의 기조가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줄이고자 해외 이민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사는 “코스피 5000이 이번 정부 핵심 아젠다가 되면서 상속세 인화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라며 “현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앞으로도 추진 동력을 얻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로 나가는 자산가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정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전출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하고 출국한 대주주는 총 29명으로, 국외이민 목적 자산 이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외전출세는 출국 전 10년 중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출국 시점에 보유한 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초과 시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13명이었던 신고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변화는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해외주식’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대주주에 한해 적용됐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거주자도 국외전출세를 내야 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절대적 숫자로는 작지만, 이들이 대다수가 기업가란 점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라며 “증세기조가 뚜렷해질수록 해외로 떠나는 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펌들과 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해외주식을 다량 보유한 이민 예정자의 경우, 출국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국외전출세 주요 내용

제도명	국외전출세(Exit Tax)
대상	대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기존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익 간주
과세 방식	출국 당시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 양도소득세 부과
개정 내용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추가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 출국분부터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실제 한국인의 해외주식 보유 규모는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보유 금액은 약 210억 달러(약 28조7000억원)로, 엔비디아가 136억 달러(약 18조3600억원)로 뒤를 잇는다. 주요 글로벌 기술주의 급등과 함께 한국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비중은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세무업계에선 국내 주식보다 해외주식 보유자가 이민 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 상당한 기간 거주한 해외주식 보유자라면 2027년 이후 출국 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이민을 생각하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증세 이슈가 많아지는 점은 의사 결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 설명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해외주식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외전출세 과세 확대는 이민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세제 환경 변화에 대한 고액자산가의 반응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선우 기자



최악의 전반전 보낸 삼성전자, 후반전에 전사 역량 총결집

2분기 비용 선반영·자사주 매입...‘상저하고’ 시나리오 포석
 테슬라, 애플 연이어 잡은 파운드리도 비메모리 회복 신호
 M&A 재개로 내부 활기...바뀐 분위기에 美 관세 반사익까지
 실적·주가 끌어올릴 여건 마련됐지만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까지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작년 7월 이후 내리막을 탄 주가는 5만원대 바닥을 기었고, D램 영업이익·수익성·점유율에서 왕좌를 빼앗기더니 메모리 반도체 사업 전체가 2위로 밀려날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새 관세 정책을 무기처럼 휘두르는데 적자 날 게 뻔한 현지 신규 팹(Fab)을 어찌할 것이냐를 두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지난 2분기 성적표도 크게 실망스러웠다.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기준 4조68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를 23%가량 밑돌았다. SK하이닉스가 9조원을 벌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4000억원을 버는 데 그쳤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가 매 분기 2조원 이상 손실을 내는 탓에 상반기 전체로도 영업이익이 1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1년 만에 실적이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투자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연말이 아닌 상반기에 일회성 비용을 대거 인식한 데 주목했다. 반도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총당금을 반영하며 DS 부문 실적이 당초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대폭 떨어졌다. 통상 팔리지 않은 재고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연말에 반영하는 편인데, 2분기에 이를 인식하며 어닝쇼크를 냈기 때문이다.

증권사 반도체 담당 한 연구원은 “실적 발표 시기가 되면 증권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잠정실적에 가깝게 수렴하는데, 갑자기 비용을 반영하면서 실적이 급락했다”라며 “고객사 인증을 받지 못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재고를 감안하면 어차피 떨어야 할 내용인 한데, 하반기 실적과 주가가 좀 더 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 달여 사이 행보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대치 이하의 성적표를 내놓는 동시에 3조9119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2조8119억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이 예정됐고,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올해 도입된 임원 대상 성과인센티브(LTI)로 지급됐다. 작년 발표한 전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완료 시점 역시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첫 LTI를 지급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삼성전자 임원의 주식소유상황보고서로 도배가 됐다. 공시된 것만 500건이 넘었다. 작년 10월만 해도 사업지원TF 임원 3분의 2가 삼성전자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저점 부근에서 임원들이 대거 주주로 합류한 셈이다.

이후 테슬라 협력을 시작으로 온갖 호재가 쏟아지고 있다. 파운드리는 테슬라로부터 22조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직후 애플과

의 신형 이미지센서(CIS) 협력도 공식화했다. 시스템LSI도 모바일(MX) 부문 스마트폰 로직 공급을 재개하는 등 비메모리 반도체 전반에서 연달아 성과를 내놓은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전방 업황에 묶여 있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성과를 내놓으니 증권가에서도 부담 없이 주가 전망을 올려 잡기 시작했다.

5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이던 인수합병(M&A) 담당자들의 행보도 전에 없이 빨라졌다. 올해 들어서만 3건의 M&A를 치렀는데 계속해서 다음 안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투자은행(IB)들도 M&A 시장에 복귀한 삼성전자를 반기며 열심히 후보군을 추려내는 상황이다. 일단 거래 실적이 쌓이기 시작하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회의적이던 목소리들도 잦아들고 있다.

외국계IB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뇌부가 반려하며 놓친 거래가 적지 않고, 규모에 비해 잔 수수료 등 문제로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긴 했는데 생각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며 “파운드리의 최근 주주 성과도 내부에서까지 수익성 걱정이 새나오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하는 시선이 더 많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투자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상저하고를 그려내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데다 마침 새 정부도 ‘코스피 5000 시대’ 목표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주지 못하면 안팎으로 곤란해질 사람이 많은 시기라는 얘기다. 국민주식인 만큼 8만전자 위층에 물려 있는 일반 주주들도 부지기수다. 많게는 성과급 80% 이상을 자사주로 받아 가야만 하는 임원들 역시도 성과를 만들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간의 정중동 태세를 고쳐잡으니 공급관계도 운이 따른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내걸고 리쇼어링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북미 파운드리 가치가 재평가되면서다. 당장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 곤란한

삼성전자·코스피 1년간 주가 추이



출처 한국거래소

빅테크들은 넘쳐나는 돈을 현지 공장에 투입하는 식으로 관세를 우회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북미 팹이 테슬라나 애플 외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실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늘고 있다.

성과로 증명하지 못했을 때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테슬라와의 협력은 파운드리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비메모리 부진을 털어낼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선단공정 파운드리의 실제 수율을 감안하면 테슬라 협력에서 짜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후속 성과를 올려야만 실적을 남길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최근 엔비디아와의 HBM 공급 협력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이 전해지지만 메모리 경쟁력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단 진단이 여전히 나온다. 결국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분기에 비용을 선반영한 것과, 비메모리로 캠티브(내부 매출)를 늘린 것만으로도 하반기 실적이나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게끔 여건은 만들어둔 상태”라며 “그러나 메모리 회복, 비메모리 부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조심스러운 시선도 많다. 불과 1년 전에도 주가가 8만800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낙영 기자



SAMSUNG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나에게 이롭게



신한은행 AI online

AI 은행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민준: 일본으로 여행하려고 하는데 연회를 완전하고 싶어

AI 은행원: 예상 잔액 3PY100 = 974.16

AI 은행원: 지금 완전하시면 9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AI 은행원: 환전할 금액을 외화나 원화로 말씀해 주세요.

김민준: 50만원 환전에 줘

외화 환전

환전 금액 입력

예상 잔액	3PY 100 = 974.16원
환전 가능 금액	3PY 15,000 ~ 3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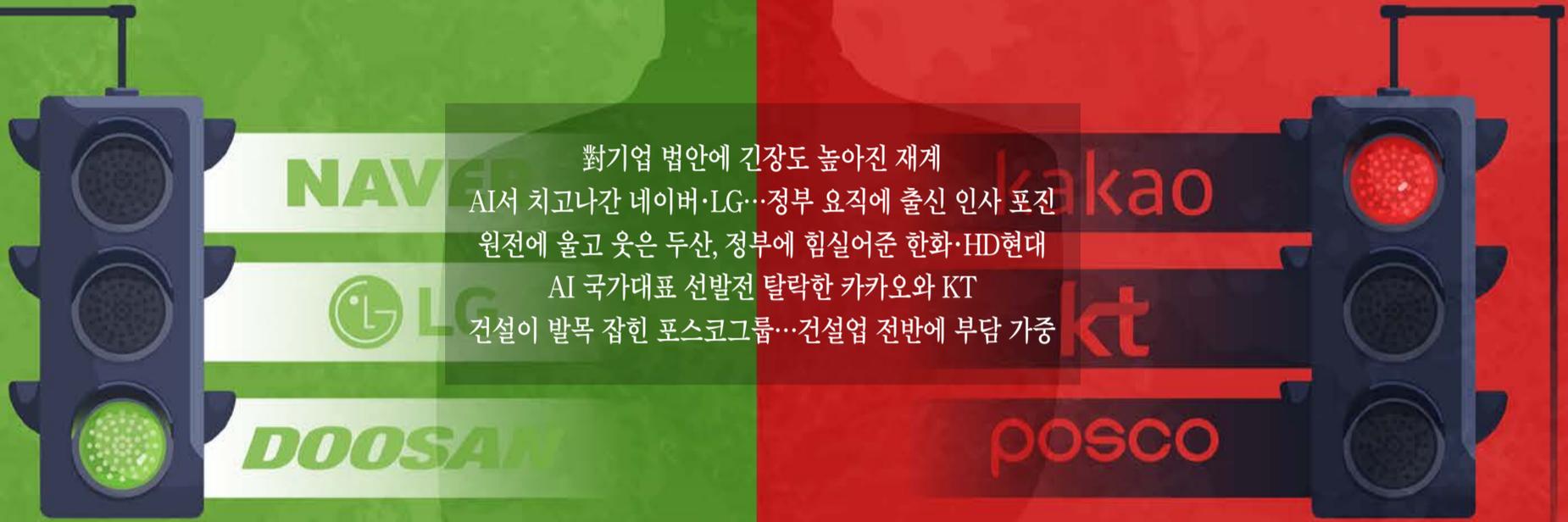
환율 우대를 9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AI 은행원

서울 중구 서소문(1층)의 9번 출구에 위치한 시브앤지는 AI 기술을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발행 및 내부용에 사용되며 다른 어떤 것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1577-8000), 방문자(1844)주말 및 공휴일 유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사선성사실 제2025-00000-02 (2025.03.21 ~ 2027.03.21)

李정부 출범후 재계도 요동… 네이버·LG·두산은 주목 vs 카카오·KT·포스코는 긴장



對기업 법안에 긴장도 높아진 재계
AI서 치고나간 네이버·LG…정부 요직에 출신 인사 포진
원전에 울고 웃은 두산, 정부에 힘써준 한화·HD현대
AI 국가대표 선발전 탈락한 카카오와 KT
건설이 발목 잡힌 포스코그룹…건설업 전반에 부담 가중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재계는 요동쳤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재계에서 꾸준히 반대해 온 법안들이 현실화했고, 중대재해처벌을 비롯해 강력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영인들의 부담은 한층 커졌다.

재계 전반에 걸쳐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더 주목받는 기업들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인공지능(AI) 산업에 우리나라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업인들의 발탁이었다. 테크 기업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약진했다.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정우 시미래기획 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네이버클라우드 팀을 포함해 SK텔레콤, 엔씨AI, LG경영개발원 시연구원, 업스태이지 등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수행할 정예팀 5곳을 발표했다. 5개 팀은 향후 'K-AI' 기업이란 명칭을 쓸 수 있고, 정부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채용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만 총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LG그룹 역시 현 정부의 첫 인선에서 고위공직자를 배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이 된 배경훈 장관은 LG 시연구원장 출신이다. LG그룹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정통 관료출신이지만 최근까지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직을 맡으며 LG그룹에 몸담아 왔다.

현 정부에서 LG그룹에 기대하는 역할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장부품과 배터리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LG그룹은 대통령의 AI 육성정책, '전기차 보급률 50%' 공약 등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그룹은 정권의 교체기, 정책의 변화에 가장 민감했던 그룹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 재직 시절 원전 폐쇄 정책으로 그룹의 존폐까지 걱정해야했던 두산그룹은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다시금 재기를 노리고 있다.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AI 산업 확장을 위해선 에너지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와 여야 모두 SMR 육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두산 그룹에 호재로 작용한다.

두산그룹에 대한 높아진 투자자들의 주목도는 주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룹의 주력인 두산 에너지빌리티 주가는 한 때 1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현재는 7만원대에 거래되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어느덧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했다.

한화와 HD현대그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전선에 섰다. 이미 두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방산기업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선 한미 조선 협력 보따리를 풀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반대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걱정이 늘어난 기업들도 있다.

카카오는 지난 2년간 김범수 창업주와 주요 경영진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리더십에 위기를 겪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엔 AI 대표 선발전에도 고배를 마셨다. 한 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네이버와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는 모습이란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카카오는 2분기 연결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진 좀 더 지켜봐야한다.

KT와 포스코 등 민간기업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KT 역시 AI 대표 선발과정에서 탈락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KT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하던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섭 대표이사 체제에서 추진해온 굵직한 M&A, 자원마련을 위한 자산 매각 작업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의 임기는 8개월가량 남은 상태인데, 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향후도 여전히 기능하기 어렵단 평가다. 다행히 실적은 양호하다. AI 사업부문이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달성하며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번 AI 대표 기업 탈락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는 평가다.

포스코그룹은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연이은 인명사고로 인해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이처럼 대통령이 나서 직접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포스코그룹은 정권 교체기에 늘 수장이 바꿨고, 이에 따라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기조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어떤 방식으로든 포스코그룹 그리고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가 트리거로 작용한 건설업계는 전례 없는 긴장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군 중 하나다. 불가피한 작은 사고하나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을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데, 삼성물산을 비롯한 1군 건설사들은 이미 해외 사업장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긴 터널에 진입한 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은 이재명 정부가 풀어내야할 숙제이다. 한화그룹, 롯데그룹, DL그룹 등이 주요 대상이고 각 거점 산단으로 확장하면 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여수 산단의 대표적인 기업 여천NCC를 둘러싼 갈등이 점화했는데 상호 비방으로 이어지는 여론전을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진 미지수다.

한화·쿠광·신세계 등 대기업 공통 관심사 떠오른 '프로젝트 리츠'

프로젝트리츠 제도 도입 앞두고 대기업 중심 확장 움직임
세제혜택·자금조달 유연성에 기업·금융·법률업계 '촉각'
내부자산 유동화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까지...리츠 범위 확장
시장 환경·인력 수요 변화...리츠 시장 구조 재편 예상

올해 부동산 업계 최대 화두는 '프로젝트 리츠'다. 개발사업과 운영을 한 구조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AMC 설립과 리츠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리츠가 상업시설·오피스 등 완공 자산 중심이었다면,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넓다. 현물출자 시 과세 이연이 가능하고,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대비 절차와 규제가 완화된 점이 대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둔 올해 상반기부터 자산관리회사(AMC) 인력 수요는 눈에 띄게 늘었다. 리츠 운용 경험이 있는 인력에는 이직 제안이 이어지고, 대기업·신탁사·운용사 간 스카우트 경쟁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연봉·성과급 수준이 제도 초기 대비 개선된 데다, 법률·회계·금융 지식이 결합된 전문 영역으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신탁사 고위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리츠 부서는 인기가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신입사원 희망부서로 리츠가 상위권에 오를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력 쏠림 현상의 배경에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이 있다. PFV는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해산해야 하고, 자산 양도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이 누적되는 시장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채널이 된다. 그룹이 스폰서로 참여하면 시공·운영 안정성이 보장돼 투자자 설득도 용이하다.

한 AMC 관계자는 "대기업이 시공과 임차를 보장하는 프로젝트 리츠는 금융기관과 투자자 모두에 매력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의 행보도 재빠르다. 한화솔루션은 AI 데이터센터, 친환경 R&D센터, 첨단산업단지 등 5조원 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프로젝트 리츠 구조로 전환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태광그룹은 '흥국리츠운용'을 중심으로 그룹 보유 부동산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과세를 이연받고, 신규 개발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쿠광은 전국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리츠에 담아 임대·운영·재개발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물류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이 프로젝트 리츠를 고려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중기적으로 10조원 규모 리츠를 목표로, 백화점·아울렛·물류센터 등 기존 자산과 신규 복합개발사업을 동시에 구조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LG그룹은 외부 자산 중심 편입을 계획하면서도, 그룹 내 배터리·전기차 관련 생산시설과 연구소 등 핵심 산업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완성차·모빌리티 허브·R&D센터 등 산업 인프라 자산을 대상으로 리츠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산업시설은 장기 임대계약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하기 때문에 리츠에 담으면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중에서도 세제 혜택은 기업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현물출자 시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고, 리츠 배당소득의 일부에 대한 세율 혜택이 가능하다. 이는 그룹 보유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신규 개발사업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여기에 지역 상생,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사회적 명분'을 결합할 수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 대외 이미지 관리에도 유리할 수 있다.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법률·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요 로펌은 리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구조설계·세무·규제 자문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도 관련 가치평가·회계처리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투자·브릿지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타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리츠의 확산이 국내 리츠 자산군을 상업·주거 중심에서 산업·인프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가 본격화되면 리츠 시장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며 "자금조달 안정성, 투자자 신뢰, 산업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1~2년간 프로젝트 리츠를 중심으로 AMC 업계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도 변화와 인력 시장 확대, 법률·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이 맞물리며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들이 내부 자산 유동화에 그치지 않고 개발 단계부터 장기 운영까지 포괄하는 프로젝트 리츠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면, 국내 자금 조달 환경과 투자 시장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설희 기자



해외주식 결국엔 된다니까!

어려운 해외주식도 쉽게!
그러니까
1타지!

- ✓ 노베이스 초보 투자자 ☆☆☆
- ✓ 해외주식만 몇 년째인 N수생 투자자
- ✓ 열심히 할수록 손해보는 현역 투자자

모든 집중!

수학 일타강사
이미지



해외주식 꿀팁
보러가기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국가별 상이(미국 0.25%, 중국 0.3%)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주식 매매시 0.00841% 제비용을 부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제25-02805호(2025.07.07~2027.07.06), CC브랜드250702-0027

구다이글로벌·APR 몸값 천정부지... 국내외 PEF도 '진격의 K뷰티' 투자에 혈안

글로벌 PEF·VC, K-뷰티에 공격적 베팅 나서 구다이글로벌 8000억 CB 발행으로 투자 유치 에이피알(APR) 성공 신화가 투자 심리 자극 밸류 과열·짧아진 브랜드 생명주기는 리스크

글로벌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탈(VC)들이 K-뷰티, 그중에서도 국내 화장품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과거 이차전지 분야에서 목격했던 투자 과열을 연상케 하는 움직임이다. 제조설비 투자 부담이 크고 기술 불확실성이 높은 2차전지와 달리, 화장품은 낮은 자본집약도와 안정적인 현금창출력, 그리고 브랜드 성장에 따른 밸류에이션 점프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더욱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 흐름의 한복판에는 구다이글로벌이 자리 잡고 있다. 구다이글로벌은 이달 8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투자자 라인업도 화려하다. IMM프라이빗에쿼티(PE), IMM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JKL파트너스,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등 국내 주요 FI들이 이름을 올렸다. 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사모펀드 중 K-뷰티에 관심 있는 자금은 거의 다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거래 구조는 전형적인 Q-IPO다. 발행 3년 내 기업공개(IPO)를 완료해야 하고, 연 8~10% 수준의 내부수익률(IRR)을 보장한다. 상장에 실패하면 발행사가 CB를 다시 사주는 풋옵션이 붙어 있다. CB 전환가격은 주당 13만원대 초반으로 책정됐다. 현재 비상장 주식 거래가격보다 높지만, 투자자들은 IPO 시점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베팅한 셈이다.

한 IB(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Q-IPO는 FI 입장에서 단기 수익을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며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투자 모델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다이글로벌의 포스트 밸류(투자유치 후 기업가치)는 4조4000억원. 시장에서는 이른바 K-뷰티에 적용될 멀티플과 글로벌 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상장 흥행 시 10조원 안팎의 평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투자자는 CB 발행과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해 초기 지분율을 확보했고, 일부는 IPO 시점까지 전환을 미룰 계획이다.

한 구다이글로벌 투자자는 “포스트밸류 4조원대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투자 금액을 늘리고 싶으니 룬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IPO 시점에 최소 2배 밸류를 기대하고 있고, 브랜드 성장과 실적 개선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섹터의 전반적인 투자 온도는 이미 뜨겁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화장품ETF는 올해 들어 수익률 50%에 가까워졌다.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55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북미·유럽·일본 시장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중국 시장 의존도가 완화된 것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다.

2025년 주요 화장품 딜리스트

기업	매도자	투자자	인수금액	거래금액	시기	비고
구다이글로벌(브랜드)	-	IMM PE, IMM인베스트먼트, JKL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키움PE,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8000억원	25년 8월	전환사채(CB)인수
서린컴퍼니(브랜드)	칼립스캐피탈·메리츠증권	구다이글로벌·컴퍼니케이	2350억원	6000억원	25년 8월	-
스킨푸드(브랜드)	파인트리파트너스	구다이글로벌·더파트너스	2000억원	1500억원	25년 8월	-
삼화(용기)	TPG	KKR	3000억원	8000억원	25년 7월	-
지다케이화장품(ODM)	JKL파트너스, 헤임달프라이빗에쿼티, 퀴테시인베스트먼트 지분 54.6%	솔루엘스케어	1000억원	430억원	25년 7월	-
비엔비코리아(ODM)	SKS PE	서영이앤티	1290억원	1002억원·277억원	24년 10월·25년 6월	-
엔코스(OEM·ODM)	홍성훈 대표,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21.5%), 타임폴리오자산운용(9.9%), LLH파트너스(5.2%) 등 보유 지분 66.7%	웰투시인베스트먼트	-	1365억원	25년 6월	-
씨앤씨인터내셔널(ODM)	-	어센트 EP	-	2850억원	25년 5월	지분투자 40%
마녀공장(브랜드)	엘앤피코스메틱 보유 지분 51.9%	케이엘엔파트너스	175억원	1900억원	25년 3월	-
실리콘투(유통)	-	글렌우드크레딧	-	1440억원	25년 2월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 440만4344주
애경산업	AK홀딩스·애경자산관리 보유 지분 63%	태광산업, 엔가PE, 풀캐피탈코리아 숏리스트 선정	-	6000억원 거론	진행중	-
에이블써센스 어퓨(브랜드)	IMM PE	-	4000억원	500-700억원 추정	진행중/분리매각	-
화성코스메틱(ODM)	어필마캐피탈 지분 70%	-	1600억원	-	진행중	-

대기업들도 뒤늦게 화장품 브랜드 확대에 참전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어센트EP)가 추진하는 색조 전문 ODM 기업 씨앤씨인터내셔널 인수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갖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 VC인 시그나이트도 여러 인디 화장품 브랜드에 투자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과거 '톱2' 기업들도 북미와 유럽 판매량이 높은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직접 인수보다는 소수 지분 투자나 전략적 제휴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브랜드 DNA를 유지하려 하고 의사결정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 틈을 충분히 PEF들이 파고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이피알(APR)의 약진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메디큐브’ 브랜드로 유명한 APR은 최근 시가총액 7조원을 훌쩍 넘기며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화장품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미국·일본·유럽 시장에서 화장품+디바이스 모델이 통하면서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된 영향이다. IPO 이후 1년 반만에 공모자금을 전액 상환했고, 1000억원이 넘는 배당까지 실시했다.

APR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화장품 유통 회사 이공이공, 제조자 개발생산(ODM) 기업 비엔비코리아도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 준비에 나섰다.

앞선 IB업계 관계자는 “APR의 성공 스토리가 FI들의 기대를 더 부추기고 있다”며 “APR이 18개월 만에 4배 가까이 시총이 상승

했기 때문에, 시장이 유사 구조 기업에 ‘포스트 APR’의 재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화장품 투자 러시를 2023년경의 이차전지 투자 광풍과 비교한다. 다만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CAPEX)나 원재료 조달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밸류에이션 과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화장품 브랜드의 짧아진 생명주기는 투자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2-3년에 승부를 봐야 하는 화장품 시장 특성상,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는 커녕 풋옵션 부담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 일부 브랜드 성장세가 둔화되고, 중국발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K-뷰티 펀더멘털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프리미엄에 기대는 투자라면 시장 분위기 변화에 따라 연쇄 충격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포스트 APR’을 찾아 혈안이다. 단기간에 APR 같은 대박 기업이 다시 나오긴 쉽지 않지만, K-뷰티가 글로벌 한류의 중심에 자리 잡은 만큼 ‘대박 신화’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색조 브랜드 ‘빠야’, 클렌징 제품으로 인기를 끈 ‘마녀공장’, 화장품 OEM·ODM 사업을 영위하는 ‘뷰티스킨’은 모두 상장 후 줄곧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보험사 벤처 투자, 위험계수 낮춰 유도?

벌써부터 兆 단위 '강매' 우려

100조원 정책펀드, 보험사까지 압박 주요 보험사들 조 단위 출자 가능성 위험계수 낮춰도 건전성 악화 우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에 대한 압박을 보험업권까지 확대하면서 보험사가 '조 단위' 투자에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10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자 속도를 내면서 거액의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업권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위험계수를 경감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하와 업황 악화로 자본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탓에 벤처 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곳이 많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각 보험사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관련 정책 펀드 출자 규모 등을 검토 중이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수천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50조원은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산은 자체 재원과 정부 보증 기금채 발행, 연기금 등의 출연 등으로 채운다. 나머지 절반은 금융권과 일반 국민의 투자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은행과 보험사가 대부분을 짊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당 각각 1~2조원의 투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보험업권도 3대 생보사와 5대 손보사를 중심으로 수백억~수천억원을 출자해, 총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금융권에서 50조원을 거의 다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니 보험업계도 회사별로 수천억원은

해야 하는 게 아닐지 고민 중"이라며 "은행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도 내놔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특히 자본 건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책 펀드 등에 투자 시 국제보다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국제 위험계수는 0%고, 주식은 20~49%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관련 위험계수를 사회기반시설(SOC)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에 비하면 여전히 준비금 부담이 크다. SOC 위험계수는 유효만기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0.7~4.2%로 부여된다.

정부가 예외 조항 등을 통해 준비금 부담을 줄여준다 해도, 듀레이션 관리 부담은 남는다. 만기가 없는 주식으로 금리 위험을 관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보험업계의 평가다. 게다가 첨단산업 펀드가 진행할 벤처 투자 경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이라는 점에서 장기 부채가 많은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높은 금리 민감도나 낮은 수익성 등 국제 투자의 단점이 명확함에도 보험사 대다수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건 준비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며 "요구자본이 증가하면 키스 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보험사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권의 전체 운용 자산은 1200조원 수준이다. 투자처는 대부분 국제로 만기가 길고 안정적 수익률을 보이는 상품을 선호한다. 이중 일부를 첨단·벤처·혁신기업 등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은 순수한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4일 뒤인 7월28일 금융협회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이

주요 보험사 운용자산 규모

(단위 : 조원)	2022년	2023년	2024년
삼성생명	223	247	243
한화생명	99	112	119
교보생명	88	97	104
삼성화재	70	80	81
DB손보	40	44	49
현대해상	43	41	45
메리츠화재	30	37	41
KB손보	32	34	38

출처 각사

자금의 물꼬를 시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에 협력하는 한편,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이 악화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키스)비율은 1분기 말 197.9%로 전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 평균 키스비율이 200%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민자 SOC 투자나 행안펀드 참여를 독려했다며 위험계수를 경감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반감제적으로 출자하게 됐다"며 "지금은 보험업권 전반이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키스 비율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펀드 만기를 20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 생존하는 벤처 기업이 몇이나 될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조성 중인 정책 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년간 반도체(17조원)와 배터리·바이오(34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자금을 통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을 엔비디아, TSMC 같은 '핵토콘'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에 자금을 집중 지원한 뒤 대출이자와 투자 회수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과 공유하겠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



‘카피캣’ 된 삼성운용... 쏟아내는 ‘미투’ ETF 상품에 업계 ‘불만’



ETF 점유율 수성 나선 삼성자산운용, 유사 테마 상품 잇따라 출시
중소형사 “지수만 다를 뿐 사실상 미투...브랜드 차원 경쟁 어려워”
“디테일 차이 있어...상품 선택 폭 확대 측면에선 소비자에 긍정적”

국내 ETF 시장 점유율 1위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유사 테마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경쟁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시장을 선도하며 후발 운용사의 추종 대상이던 삼성이, 최근에는 되레 후발로 유사한 상품을 내놓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환헤지)’ ETF를 상장했다. 삼성운용도 동일한 테마의 ETF에 대해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표준코드를 부여받아 상장을 준비 중이다. 상장 시점을 고려하면, 한 달 간격으로 유사한 콘셉트의 ETF가 시장에 출시되는 셈이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KODEX K방산TOP10’ ETF를 상장했다. 앞서 한화자산운용이 선보인 ‘PLUS K방산’ ETF와 비교하면, 기초지수는 다르지만 구성 종목 상당수가 겹치며 총보수율도 동일한 0.45%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지수만 바꿨을 뿐 사실상 기존 상품을 벤치마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유사 구조는 방산 외에도 리츠, 2차전지, AI, 미국 배당 등 인기 테마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출시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와 구성 자산군과 운용보수 측면에서 유사하다. 2차전지 섹터에서도 미래에셋운용이 2020년 선보인 ‘TIGER 2차전지TOP10’과 삼성의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2023년 출시)은 테마와 종목 유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도 한화자산운용이 2023년 상장한 ‘PLUS 미국테크TOP10’ ETF는 저보수(0.01%)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대형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삼성운용은 이보다 1년 뒤, 유사한 전략의 ‘KODEX 미국테크TOP3플러스’를 출시했다.

지난 5월 상장된 한화자산운용의 ‘PLUS 차이나이테크TOP10’과 6월 삼성운용의 ‘KODEX 차이나이테크TOP10’ 역시 테마와 구성 종목 상당수가 중복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1년 출시한 ‘ACE 미국배당다우존스’(운용보수 0.01%)와, 삼성운용이 이보다

삼성자산운용과 타 운용사 간 유사상품 케이스

출처 ETF CHECK

타 운용사 ETF			삼성ETF		
상품명	출시일	총보수율	상품명	출시일	총보수율
PLUS K방산	2023년 1월 5일	0.45%	KODEX K방산TOP10	2025년 7월 15일	0.45%
PLUS 차이나이테크TOP10	2025년 5월 13일	0.49%	KODEX차이나이테크TOP10	2025년 6월 17일	0.45%
PLUS미국테크TOP10	2023년 7월 18일	0.01%	KODEX 미국테크TOP3플러스	2024년 9월 10일	0.30%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2021년 10월 21일	0.01%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2024년 8월 13일	0.01%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2019년 7월 19일	0.08%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2024년 3월 5일	0.45%
TIGER2차전지TOP10	2020년 10월 7일	0.40%	KODEX2차전지핵심소재10	2023년 7월 4일	0.39%

낮은 보수율(0.0099%)로 지난해 선보인 동일 상품명 ETF도 대표적인 카피캣 사례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삼성운용이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소형 운용사들이 대형사의 상품을 모방하는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삼성과 같은 선두 사업자가 후발로 유사 상품을 내놓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 배경에는 ETF 시장 점유율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ETF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하락하며,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격차가 2%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지난해 12월 초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의 점유율은 37.88%,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6.57%로 1.31%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ETF 사업부문 수장이었던 하지원 부사장을 선임한 지 1년 만에 교체했다.

점유율 경쟁이 경연된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삼성자산운용은 ‘안전하게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는 검증된 테마 ETF’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는 업계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측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테마의 경우,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높은 테마에는 운용사들이 앞다퉈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같은 테마를 다루더라도, 지수 설계 방식이나 편입 종목 구성에는 전략적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방산 ETF의 경우, 실제 방산 매출과 해외 수출 비중 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버퍼형 ETF처럼, 특정 테마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적용한 실험적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용업계에서는 카피캣 전략을 제약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ETF 시장의 제도적 구조를 지적한다. 기초지수 구성, 운용보수, 상품명 유사성 등은 상장 심사에서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수 제공자와의 독점 계약이나 유사성 판단 기준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하나의 테마 상품이 성공을 거두면 유사 ETF가 뒤따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삼성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자산운용 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삼성자산운용의 이 같은 흐름 뒤에는 ETF 시장 점유율을 놓치지 않겠다는 조직 차원의 수성 의지와 위기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며 “문제는 새로운 전략을 먼저 시도하는 운용사만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이라, 시장은 결국 차별성 없이 ‘히트 상품 복제’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숨은 금융자산 찾으러 교보로감

빠진 것이
다 찾았네!

정해인님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았어요!

총 금액
1,230,000원

찾지 못한 보험금
중도 포기한 적금
잊고 있던 통장 잔금
만기된 보험금

보험금 환급 안내 받기

마이데이터로
속 시원하게
숨은 금융자산 찾기



지금 교보생명 앱에서
숨은 자산을 찾아보세요!

[필수안내사항]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은 상품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9-2507-49 디지털마케팅팀(2025.07.15-2026.07.14)

韓전세시장 월세화에 미국·영국 베팅... 일본·홍콩 기반 쏘자본도 진출 가세

서울·수도권 월세 비율 모두 60% 돌파
서구 자본에 아시아 자본도 한국 진출
정책금리 낮은 일본, 대출에서도 강점

외국계 자본의 국내 임대주택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까지는 미국·영국 등 서구 자본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일본·홍콩 등 아시아 자본도 가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낮은 금리를 기반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서울과 수도권 모두 60%를 넘긴 건 올해 상반기가 처음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월세 거래량 비중은 서울이 74.1%, 수도권이 72.2%를 기록했다. 월세 비중은 2021년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이어지며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커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환율은 안정되는 듯했지만 다시 1400원대에 근접해 원화 저평가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본이 중심이었다.

모건스탠리는 서울 강동구 길동 '지웰홈스 라이프 강동'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울 성북구 안암동 등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KKR은 작년 상반기 홍콩계 공유주거 기업 위브리빙과 손잡고 영등포구 양평동 호텔을 프리미엄 레지던스로 전환했고, 동대문구에는 '위브플레이스 회기'를 선보였다. ICG, 하인즈(Hines)도 사업 투자를 시작했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자본도 직간접적으로 한국 진출에 가세하고 있다.

홍콩계 투자금융그룹인 SC로위는 8월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지젤라이프그라피서초'를 담보로 후순위 2100억원 대출에 단독 참여했다. 분양 이후 PF 미상환 잔액을 미분양 담보대출로 리파이낸싱 할 목적이다. 399호실 중 320호실이 미분양이다. 전체 담보대출은 3700억원 규모다.

SC로위는 한국자산신탁의 신탁계정대(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 신탁사의 자체자금) 1790억원 전부와 미지급 공사비 일부를 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한국자산신탁의 차입형태도신탁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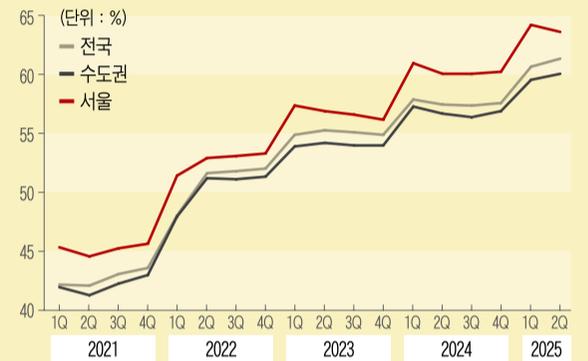
한국자산신탁 한 관계자는 "SC로위의 참여로 한국자산신탁은 계정대를 전액 변제했다"며 "SC로위는 미분양된 320호실로 임대 사업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2월 서울 서초구 '더팰리스73' 개발 사업의 선순위 대출금 1100억원을 인수할 당시 한 일본계 투자은행(IB)은 자기자본(EI)을 투입했다. 작년 더팰리스73 사업이 분양률 저조로 무산되고 시행사 더랜드그룹은 스타로드자산운용과 사업부지 매각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후 이지스자산운용은 컨소시엄의 선순위 대주단인 롯데손해보험(1000억원)과 iM캐피탈(100억원) 몫을 인수했다.

일본계 금융기관은 낮은 금리를 내세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정책금리가 0.5%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일본계 금융기관은 타국의 금융기관보다 요구수익률(IRR) 설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작년 모건스탠리가 그라비티운용과 서울 강동구 길동 복합건물 인수 당시 미즈호은행이 출자자(LP)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코어펀드 '프라이미 프라퍼티 펀드' 자금을 활용했다. 미즈호은행이 낮은 금리로 출자해 펀드의 IRR이 높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기별 누계 주택 거래 중 월세 거래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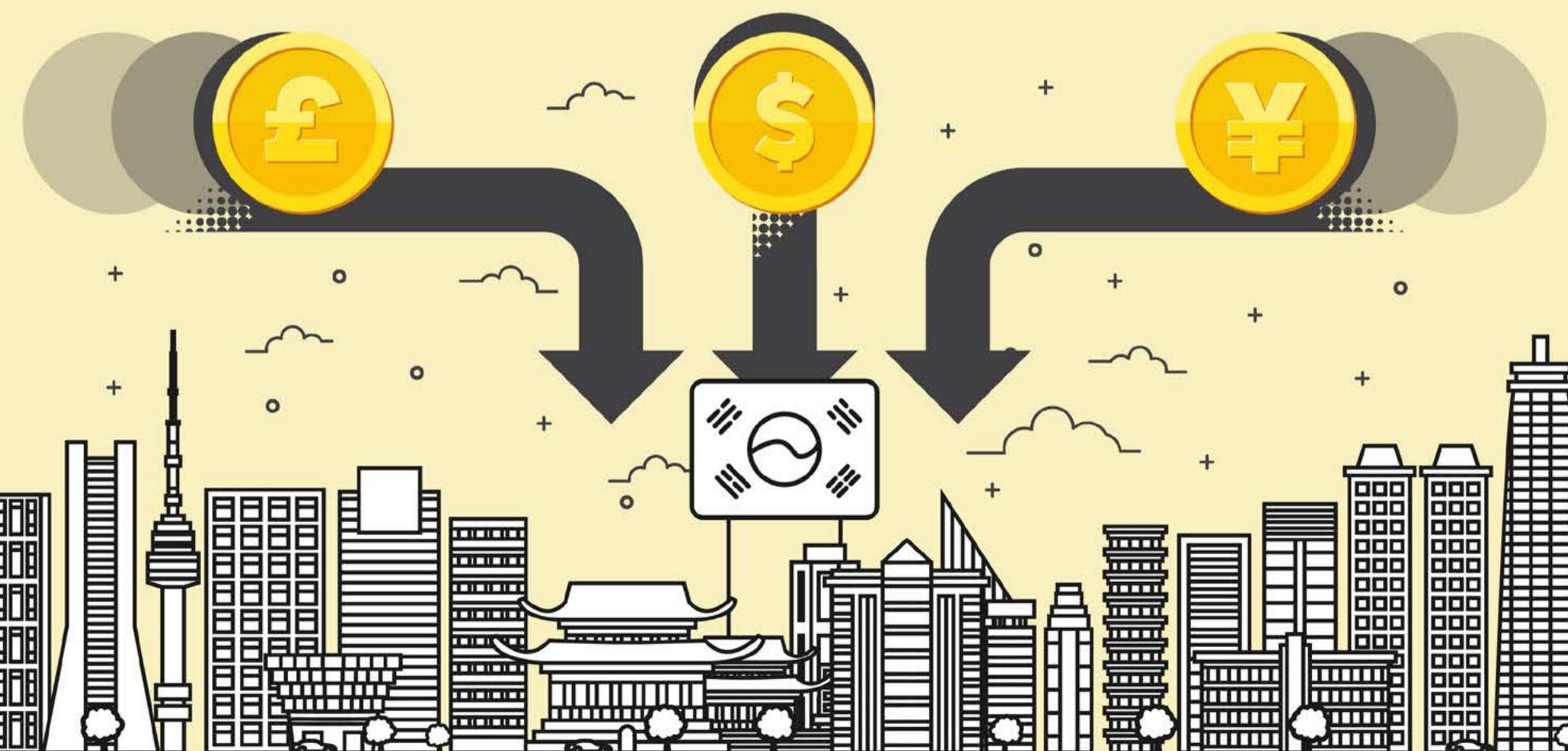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이외에도 일본계 금융기관이 한국 부동산 전반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4성급 호텔·복합상업시설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흥대'를 인수했다. 이 시설은 일본 철도회사 소테츠그룹 계열 호텔 운영사인 소테츠도 인수를 원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JB자산운용과 손을 잡고 소테츠는 500억원 규모의 우선주 투자를 검토했다.

물류센터 투자 검토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글로벌IB 한 관계자는 "기존 물류센터 투자로 이미 자금이 묶인 국내 금융기관은 신규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공백을 일본 금융사가 메우고 있다"며 "일본 금융사의 금리가 국내의 IB보다 50~80bp(1bp=0.01%포인트) 낮다보니 경쟁력도 높은 편"이라 말했다.

이지훈 기자



연말 앞두고 술렁이는 연기금·공제회… 수장 거취에 ‘촉각’

국민연금, 이사장·CIO 동시 교체 가능성…시일은 걸릴 듯
행공·건근공 이사장도 임기 만료…행공은 후임 인선 돌입
KIC·사학연금 CIO는 연임 가능성 거론…운용성과가 변수
임기 남아도 안심 못해…정권 교체 때 잦은 중도 퇴임 전례

국내 ‘큰 손’ 기관투자자인 연기금·공제회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이사장과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주요 수장들이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대거 교체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정권 교체로 인해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전 정권과 연관성이 깊은 인사들 역시 ‘인사 태풍’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13일 투자는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공단과 사학연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이사장, 또는 CIO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공제회가 최근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CIO를 올해 중 선임할 것으로 관측되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CIO는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운용자산(AUM)만 1237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연금은 올해 이사장과 CIO 모두 임기가 끝난다.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교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태현 이사장과 서원주 CIO 모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연금 특성상 연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김태현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쳐 2022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예보 사장 재임 중 국민연금 이사장에 공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후임 인선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새로운 정부가 각 부처의 장관 선임도 모두 마치지 않은 데다, 정부 조직 개편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공공기관 인사가 후순위로 밀려난 탓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8월 중순을 향해가는 현재까지도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서원주 CIO는 한 차례 연임한 임기가 올해 12월 끝난다. 당초 지난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고위층의 의사결정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게임 사태’로 후임 인선에 어려움을 겪으며 1년 연임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사장과 CIO 모두 교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과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도 각각 8월과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행정공제회는 이미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으며, 4명의 지원자 중 2명을 서류심사로 추려 면접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대의원회 통과 기준이 까다로워 재공모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장회 이사장 역시 두 차례 선임이 무산된 끝에 선출된 바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11월 임기를 끝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국회부의장 보좌관과 미주물산 고문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건설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선임돼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올해 임기 만료 예정 연기금·공제회 수장 현황

연기금·공제회명	이사장(사장)	취임일	임기 만료일	CIO	취임일	임기 만료일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2022년 9월	2025년 8월	서원주	2022년 12월	2025년 12월
사학연금	송하중	2023년 7월	2026년 6월	전범식	2023년 11월	2025년 11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회	2022년 8월	2025년 8월	허장	2025년 4월	2028년 4월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2022년 11월	2025년 11월	신익철	2025년 7월	-
경찰공제회	이영상	2025년 4월	2027년 4월	공석	-	-
한국투자공사	박일영	2024년 9월	2027년 9월	이훈	2022년 8월	2025년 8월

반면 한국투자공사(KIC)와 사학연금의 CIO는 조심스레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장 오는 16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훈 KIC CIO는 아직 공식적인 후임 인선 절차에도 돌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규상 후임 인선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당분간 이 CIO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범식 사학연금 CIO도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사학연금은 2년의 임기 후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한데, 연임 전례가 많다. 전임자인 이규홍 전 CIO 역시 두 차례나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전 CIO 체제 아래 사학연금은 사학연금은 2023년 13.5%, 2024년 11.63%라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전 정권과의 인연 탓에 자리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윤석열 캠프 정책고문을 지낸 경력이 있으며,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도 내년 말까지 임기가 남아있지만,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는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취임 당시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예비역 소장·중장이 임명되지만, 정 이사장은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지만, 잔여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도 정권 교체 시 임기를 남기고 물러난 사례는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황서종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임기를 15개월 남기고 2023년 3월 돌연 사임했으며, 김유근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역시 임기를 절반만 채우고 2022년 7월 중도 퇴임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 인사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환경이 거취를 결정하는 만큼, 연말까지는 주요 기관 수장의 인사 변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박태환 기자



AI를 활용한 첨단 산업 솔루션으로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여
무한한 잠재력이 펼쳐지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LG와 함께할 가슴 뛰는 미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